

pay
일상을 위한 보험
카카오페이 간편보험

[금융]
2030 겨냥
온라인보험 '춘추전국'
핀테크사도 가세
05



Life

[인터뷰]
'세종, 소용의남자'
최혜경
선아예술단 이사장
L2



을지로 세종대로 차선 줄고 인도 넓어진다...사대문 '도로 다이어트'

서울시 도로공간 재편 사업
세종대로 10~12차로→6~8차로
을지로 6차로→4차로로 축소
총무로·창경궁로 1개씩 줄여
속도 저감 유도, 보행자 편의 ↑

서울시가 을지로와 세종대로의 차도를 줄이는 등 사대문 내 도로 다이어트를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9일 을지로, 세종대로, 총무로, 창경궁로 도로공간 재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다.

도로공간 재편 사업은 도로의 수납폭을 줄여 생긴 공간에 보행안전시설과 편의시설, 녹색·공유교통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을지로 시청삼거리~동대문역사문화거리에 이르는 2.5km 구간은 6차로를 4차로로 줄인다. 세종대로 교차로에서 서울역 교차로 1.5km는 기존 10~12차로



에서 6~8차로로 바뀐다. 일방통행으로 운영 중인 총무로(1km)와 창경궁로(0.9km)도 1개 차로를 축소한다. 차도가 사라진 공간에는 보행로와 자전거 전용도로, 공유차량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을지로 서울광장 인근부터 DDP 주

변은 2차로가 줄어든다. 시는 보도를 확충하고 단절된 자전거 도로를 잇는다. 공유차량 주차 및 조업 주차 공간 90면을 배치해 보행자와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공간으로 개선한다. 을지로 3~5가는 보행친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현재 양측 3개 차로가 조업주차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하도 진출입부 환기시설, 배전함, 불법적치물로 보행여건이 열악한 지역이지만 이번 공간 재편을 통해 걷기 좋은 곳으로 변신할 예정이다. 시는 미세먼저저감을 위해 띠 녹지를 배치하고 보도 위 지장물을 없애 무장애 보행환경을 만든다.

세종대로는 차도가 30~40%가량 줄어든다. 보도가 확장되고 자전거 전용도로, 나눔카 주차장 등이 생긴다. 총무로와 창경궁로 내부 35개 지점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차량 통행 속도 저감을 유도하고 보행자 편의를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문장교대식으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대한문 앞 보도를 최소 5m 이상 넓히고 송례문으로 바로 연결되는 횡단 보도를 새롭게 만든다"며 "광화문에서 송례문, 나아가 남산과 서울로7017까지 한번에 연결되는 관광 명소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로 재편 사업이 진행 중인 퇴

계로 2.6km 구간은 내년 5월 완공된다. 기존 1.2~3m 보행공간이 6m까지 넓어진다. 파퓰러 대여지점 4곳이 설치되고 나눔카 대여지점 3곳과 조업주차 공간이 마련된다.

시는 2025년 녹색교통지역 내 21개 주요 도로에 대한 공간 재편이 마무리되면 보행 공간이 15만6810㎡(시청광장 12배)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시는 국내 최초로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지역의 녹색교통(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공간을 2배로 늘려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은 30%,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줄인다는 계획이다. 도로공간 재편 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심 공간 재편 사업을 시 전역으로 늘려 시민들의 보행권을 혁신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수원 연무 등 10곳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경기도 하반기 사업지 확정
광주 송정 등 총 950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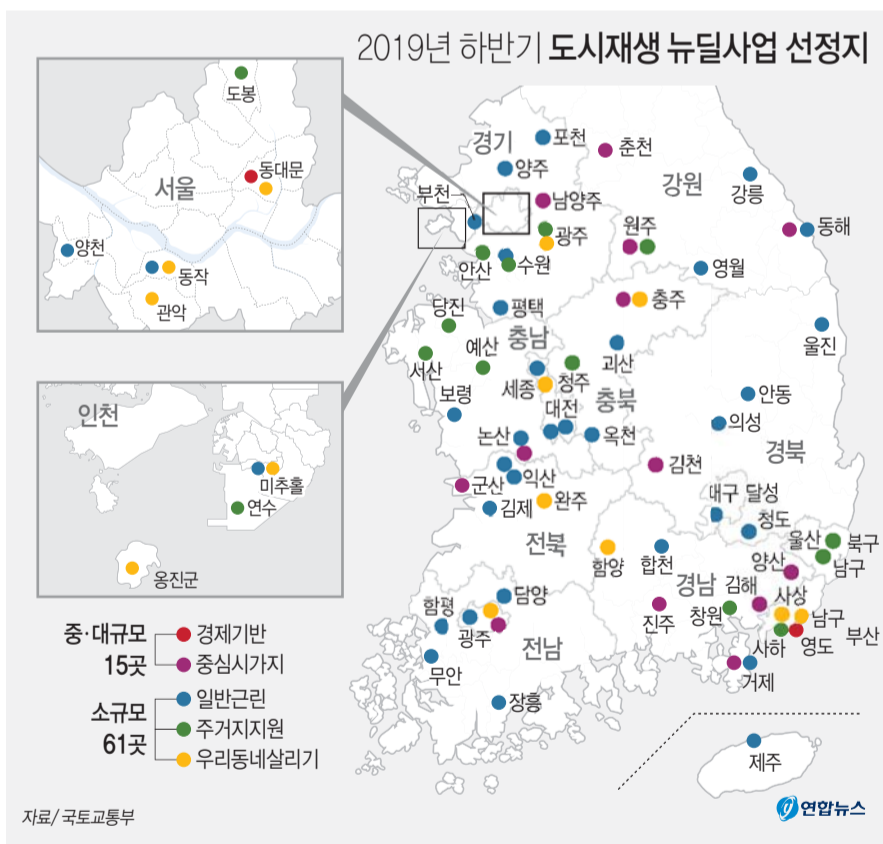
경기도는 수원시 연무동 등 도내 8개 시의 10개 지역이 정부의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도는 2017년 8개, 지난해 9개, 올해 상반기 4개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31개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올 하반기 선정된 10개 지역은 면적 5만㎡ 이하 '우리동네살리기' 1개(광주시 송정동), 5만~10만㎡ '주거지원형' 3개(수원시 연무동·안산시 본오2동·광주시 송정동), 10만~15만㎡ '일반근린형' 5개(수원시 세류2동·부천시 심곡본동·평택시 신장동·양주시 회천1동·포천시 신읍동)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총 95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광주시 송정동 지역은 생활복지구현을 위해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와 송정문화센터 조성 등이 사업계획에 포함됐다.



수원시 연무동 지역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 어울림 터 및 세대통합 어울림 공간 조성사업 등을 담았다. 부천시 심곡본동 지역은 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어울림 복합센터와 팔백문화거리 조성사업 등을 사업목표로 잡았다.

/수원(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신설·개선 등 손질

이용객 증가로 추가 설치 민원 ↑
1~9호선 315개 쏘역사 실태조사

지하철 역사 주변 개발로 이용객이 늘어나 출입구를 신설해달라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시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역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지하철 출입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

시는 지하철 1~9호선 315개 역사를 전수 조사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곳은 출입구 추가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다. 지역별 특성과 출입구 설치의 불합리성, 향후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하철 역사 일대 재개발과 도시철도 광역화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해

출입구 추가 설치에 대한 주민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 개통된 지하철 8호선 장지역의 경우 문정동 법조타운, 위례신도시 등이 들어서면서 승승인원이 늘어나 출입구 추가 설치 민원이 제기됐다.

5호선 우장산역처럼 출입구가 편중돼 있거나 3호선 학여울역과 같이 출입구가 1개로 부족해 지하철 이용이 불편한 곳도 있었다.

출입구 추가 설치하는 타당성 조사 이후 진행되지만 지하 굴착, 지장물 이설 등으로 사업비가 많이 드는 데 비해 비용 대비 편익이 낮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현재 타당성 조사에 포함된 통행 시간 감소 편의 외에 지역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하철 출입구 설치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패션위크', 14~19일 DDP서 열린다

서울시는 14~19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0 S/S(봄·여름) 서울패션위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이번 패션위크는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서울컬렉션' ▲신진 디자이너 작품을

선보이는 '제너레이션 넥스트' ▲런던 패션위크와 함께하는 '해외교류 패션쇼' ▲패션 꿈나무들이 펼치는 '대학생 우수작품 패션쇼'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컬렉션에는 지준희, 장광호, 송지오 등 국내 우수 디자이너들의 패션

쇼를 33차례 만나볼 수 있다. DDP 앞길 2관이나 살림터 지하 3층에서 열린다.

K-패션의 저변을 넓혀나갈 신진 디자이너 패션쇼에는 문재이, 윤석운 등이 참여한다. 행사는 DDP 어울림광장 중앙에 설치된 GN관에서 진행된다.

이외에 포트폴리오 리뷰, 샘플마켓, 지속가능 패션 포럼, 멘토링 세미나 등 시민 참여 행사도 마련됐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배재학당에 전국체전 기념 표석 세워

'1회 전조선야구대회' 개최지

서울시는 전국체육대회의 효시가 된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가 열렸던 옛 배재고보 운동장(현 배재학당역사박물관) 터에 기념 표석을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선체육회는 친일단체인 조선체육협회에 대항하고 민족의 정신과 신체를 발달시키기 위해 1920년 7월 13일 창립됐다. 같은 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배재고보 운동장에서 조선체육회

가 개최한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는 전국체육대회의 시초로 평가받는다.

서울시는 제100회 전국체전 기념사업의 하나로 대한체육회, 배재학당역사박물관과 협의를 거쳐 가로 35cm, 세로 70cm, 폭 24cm 크기 역사문화유적 표석을 제작·설치했다.

역사문화유적 표석은 사라진 문화유산 터나 역사적 사건 현장을 기념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표석에 담아 설치하는 제도다. 1985년부터 시작돼 현재 시 전역에 320개가 설치됐다. /김현정 기자